

STS 포럼

제5차 연차총회 : 사회 속의 과학기술

글 | 이기준 _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kjip@kofst.or.kr



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응용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사례들도 자주 목격된다. 그래서 21세기 들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과학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토회의는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명암을 진단하고 사회적 시각에서 처방을 마련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대표할만한 석학이거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지만 자기 나라를 위한 대표발언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오로지 자신만이 생각하는 세계, 자신만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박진감 넘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포럼의 가치가 돋보였다. 교토포럼은 작은 지구촌이었다.

여기서 지구인들은 지혜와 창조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힘썼고, 마침내 공통의 인식을 발견해 하나의 성명으로 집약했다. 성명은 3일간 토의된 내용을 기후변화, 에너지, 바이오연료, 계능 연구, 정보통신기술, 지적재산권, 정부개발원조 등 대략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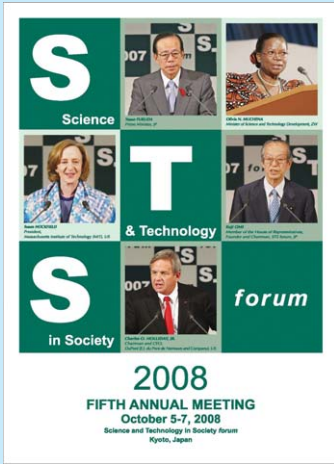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도 세계를 논의하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품격을 갖춰야 할 때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 마침 일본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대거 수상하게 됐다는 뉴스마저 접하니 뭔가 우리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비장한 마음도 들었다. 세계 과학기술총회로 불릴만한 STS포럼은 올해 필자가 만난 가장 큰 충격이었다(STS포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stsfor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의 고도 교토에서 STS포럼이 열렸다. 2004년 발족한 이 포럼은 올해가 5번째로 '사회 속의 과학기술'을 메인테마로 잡고 있다.

20세기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이 인류에게 번영과 높은 삶의 질을 선사했지만 윤리, 안전,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관한 최종 성명서



1 _ 2008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91개국에서 750명이 넘는 과학자, 정책 입안자, 사업가, 여론 지도층이 모인 올해의 STS 포럼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2 _ 자연과의 조화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동안 STS포럼은 지구환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

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G8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결정을 공유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제 현실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3 _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의 급속한 향상과 함께 신·재생 청정 에너지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핵물질의 보호, 안전성 및 안전 보장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서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야 하고, 동시에 핵융합 기술의 개발도 꼭 필요하다.

4 _ 화석 연료의 대체 연료로 인식되어왔던 바이오 연료는 전 지구적 식량과 환경 문제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 식량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위한 제2세대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5 _ 늘어나는 기아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고려하면 개도국의 식량 증산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일반인이 유전자 조작 작물과 비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연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6 _ 게놈 연구의 발전에 따라 맞춤형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과 예방의료의 발전을 가속시켜야 한다.

7 _ 지구환경, 교육,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보 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효율성 향상은 정보 보안,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합치된 형태로 추구해야 한다.

8 _ 지적 재산권 제도는 혁신에 꼭 필요하고, 전 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다. 혁신을 강조하는 지적 재산권 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 _ 선진국 연구자들의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가 중요하다. 정부개발원조(ODA)를 이용해서 개도국 연구자들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협력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10 _ STS 포럼에서 과학기술 장관회의와 대학총장회의에 덧붙여서 처음으로 학술단체 대표회의와 젊은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분과를 설치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1 _ 과학기술이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와 과학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과학자도 정책 입안에 참여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과학자들이 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들의 과학적 지식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과학자도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일반 대중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고, 과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소통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2 _ STS포럼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가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지구상에서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면서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 _ STS포럼 제6회 연차총회는 2009년 10월 4일(일)부터 6일(화)까지 교토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교토에 다시 모여 자연과 조화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의 건설에 공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